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6. 8. 9.(화)	담당부서	에너지신산업정책과
담당과장	김상모 과장(044-203-5360)	담 당 자	안근영 사무관(044-203-5362)

"문 열고 냉방영업" 본격 단속 시작, 과태료 부과는 8.11일부터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'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'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8.9. 공고(이하 "에너지사용 제한 공고")하여 8.10.~ 8.26.까지 17일간 시행한다.

○ 산업부는 이번 주 들어 예비력 급락에 따라 향후 예측치 못한 발전기 정지 등의 전력수급 차질 우려에 대비해,

-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"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"를 금지하기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.

○ 아울러 상기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(28℃이상)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(26℃)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.

□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, 점포, 사무실, 상가, 건물 등의 사업자로 하며,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,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.

○ 더불어 이에 대한 점검은 각 상권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추진하고, 정부, 지자체,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도 진행하기로 했다.

○ 위반시 과태료는 8.11일부터 부과되고, 점검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다.

* (최초) 경고→(1회) 50만원→(2회) 100만원→(3회) 200만원→(4회 이상) 300만원

□ 한편, 8.9일(화)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에 대한 홍보와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계도 및 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.

○ 동 캠페인에서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"'문 열고 냉방'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, '문 닫고 냉방' 할 때보다 3~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되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"며, "사업자들이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"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< 문 열고 냉방영업 자제 및 절전 캠페인 개요 >
- 일시 및 장소 : '16.8.9.(화) 14:00~15:00, 강남역 일대
- 참석자 :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,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, 지자체 등 25명 내외
- 주요 내용 : 문 열고 냉방영업 자제 캠페인(피켓 홍보, 홍보물 배포 등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참고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안근영 사무관(044-203-536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에너지사용 제한의 관한 공고 주요 내용**

□ 시행기간 : ‘16.8.10.(수) ~ ’16.8.26.(금) (3주간)

○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, 냉방온도 제한(민간 권고, 공공 의무)을 실시

* ‘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‘16.8.11.(목)부터 적용

구 분	제한대상	제외대상	제한내용
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· ‘16.8.11.(목) 부터 과태료	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, 상가, 건물 등	냉방기 미설치 사업장, 지하 도상가 등	·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
공공기관 냉방온도* (의무사항)	공공기관 (2만여개소)	학교, 도서관, 민원실, 의료기관, 전시실, 대중교통시설 등	· 냉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28℃이상 유지(단, 가스냉방, 지역냉방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26℃이하 유지)
민간부문 냉방온도 (권장사항)	계약전력 1백kw 이상 (약 8.8만여개소)	공동주택, 사회복지시설, 강의실, 숙박시설, 공연장, 전시장, 회의장 등	· 피크시간대(10~12시, 14~17시) 실내온도 26℃이상 유지(단, 토, 일, 공휴일 제외)

*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는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(산업부 고시)」에 따라 상시 시행중

에너지에서 찾은 미래
에너지신산업
시장으로 | 미래로 | 세계로